

탁아법 제정 움직임은 지난해 10월 한국여성단체연합이 국회의 장 앞으로 '탁아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본격화됐다.

이 청원서 내용을 적극 수용, 11월 평민당 박영숙 의원의 69인이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한 것이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탁아복지법률안'이다. 80년대말 들어 빈민지역 맞벌이부부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 출발했던 빈민지역 탁아소들이 중심이 되어 벌여온 탁아법 제정 움직임은 보사부가 92년까지 1천2백40개의 탁아소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국회에 '탁아법 소위'가 만들어지도록 하는 데까지는 일단 성공했지만 아직 통과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벽이 많다.

그동안 보사부와 국회 보사위

원회 의원들마저도 공식석상에서 "아동보육 책임은 일차적으로 부모에게 있으며 탁아소가 많이 생기면 그만큼 가정보호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직장탁아소가 의무규정화되면 회사들이 기혼여성을 꺼려 여성 취업이 더

하겠다는 뜻을 기회있을 때마다 표명해왔다.

그러나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가의 탁아소 설치의무를 명확히 하지 않은 점, 농촌탁아 직장탁아 등을 총괄할 수 없다는 점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

90. 3. 17

뒷걸음질치는 탁아법 제정

보사부등 계속 반대...전 민주 법안도 폐기

힘들게 되는 결과를 낼 뿐"이라는 등의 반대입장을 누누이 표명해 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따로 타아관련법을 만들기도는 현행 아동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타아정책을 총괄

으로 지적되어 왔다.

탁아법 제정을 요구하는 쪽은 탁아 관련업무가 보사부, 내무부, 노동부 등으로 나뉘어 있어 이를 일원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탁아 주무부

서는 보사부로 되어 있지만 새마을유아원, 농번기 탁아소는 내무부가, 직장탁아소는 노동부가, 도시 탁아시설은 보사부가 각기 나눠 맡고 있는 실정이다.

탁아법 제정 촉구를 위해 탁아문제 특별대책위원회를 결성한

복지법률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탁아소를 설립하여야 하고 국·공립 지역탁아소는 도시빈민지역, 공단지역, 농어촌지역에 우선적으로 설립하여야 한다(제2장 제7조) △상시 2백명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기업부담으로 직장탁아소를 설립하여야 한다 △국공립 지역탁아소를 이용하는 저소득층 아동의 보육료 부담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보사위 '탁아관계법안 심사소위원회'는 전 민주당이 발의했던 '영유아보육법'을 폐기하고 4월초 다시 소위원회를 열기로 합의하고 서둘러 심의를 끝냄으로써 이번 임시국회에서의 탁아법안 통과는 사실상 무산됐다.

만 6살 이하 자녀를 둔 취업모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탁아를 필요로 하는 어린이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우리나라 어디에도 없다.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은 올해 인구조사에서 이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을 뿐이다.

최근 보사부는 한국여성개발원조사를 근거로 탁아를 필요로 하는 아동수를 82만명으로 추산했다.

한국여성개발원이 87년 실시한 '여성취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 6살 미만 자녀를 둔 취업모는 1백29만명으로 나타났다.

경제기획원이 집계한 88년 우리나라 여성 경제활동 인구

는 6백89만1천명, 15살 이상 여성 인구중 경제활동 참가율은 4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기혼여성 취업률이 75.6%로 기혼 경제활동 여성의 수는 5백16만8천2백50명이다. 이중 0~6살 난 자녀를 둔 것으로 추정되는 20~34살

90. 3. 17

돌봐줄 손길 기다리는 어린이 1백만명

대상자중 1%만 시설 수용 가능

의 기혼 취업여성 수는 2백82만1천명이고, 25~34살의 여성만도 1백69만8천명에 이른다. 이들이 1명씩의 자녀만을 갖고 있다고 쳐도 그 숫자는 1백만명을 훨씬 넘는다.

또한 우리나라 0~5살 어린이의 숫자는 88년 통계로 4백11만9천명이고, 15살 이상 전체

여성중 기혼 취업여성의 비율이 34%인 점에 비춰볼 때, 기혼 취업여성의 0~5살 난 어린이는 1백39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이들 어린이를 종일 돌봐줄 수 있는 탁아소는 빈민지역 탁아소 2백

여개(총 수용규모 5천여명)와 시립탁아원 1백40여개(4천6백여명) 뿐이다. 새마을유아원은 개원 시간이

오전 9시~오후 5시로 맞벌이부부 근무시간과 맞지 않으며 농촌에서 봄·가을로 열리는 농번기 탁아소도 2달간 5만여명만을 일시적으로 돌볼 수 있을 뿐이다.

결국 탁아가 필요한 어린이 가운데 1% 정도만이 시설에 수용되고 있는 셈이다.